*위 환경운동연합 로고는 경남환경운동연합에 해당합니다.

수신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원희룡 기획위원회 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창양 경제2분과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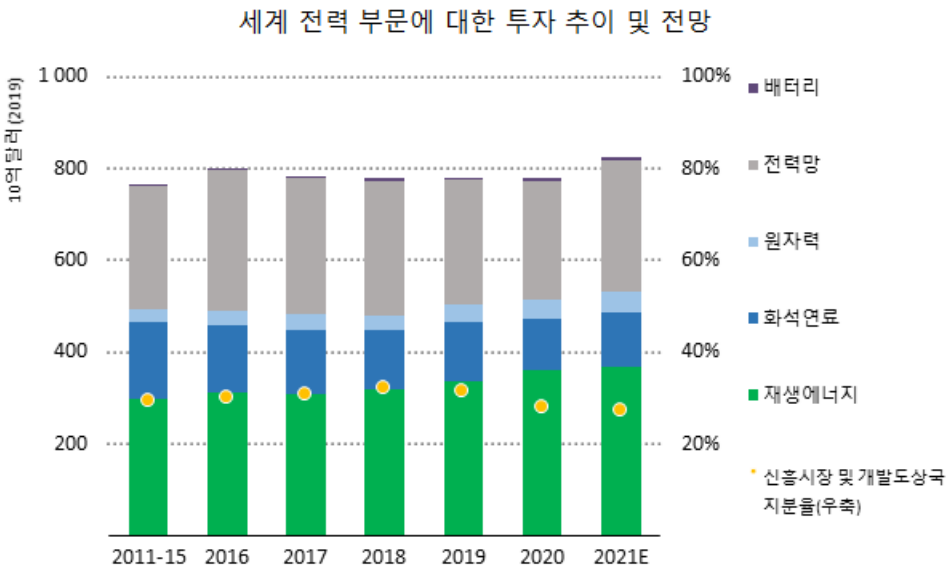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임이자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2022년 4월 13일

원희룡 위원장님, 이창양 간사님, 임이자 간사님께

국제사회에서 2050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새로운 글로벌 경제 흐름을 만드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10대 공약으로 제시한 탄소중립 실현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보임과 동시에 앞으로 새로운 글로벌 질서에 우리나라의 위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경제질서, 특히 에너지 시장 질서 역시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의하면, 2021년 전 세계 전력 부문 투자의 45%가 재생에너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1년 전 세계 전력 부문 투자의 45%가 재생에너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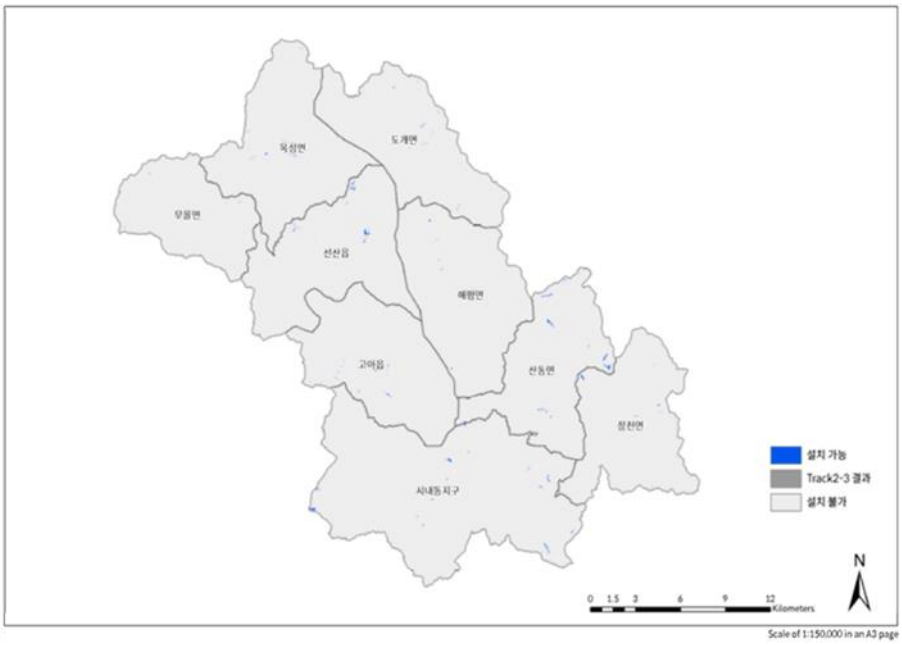
국내 또한 삼성, 엘지화학, 한화큐셀 등 우리 대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도입되는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어 재생에너지 잠재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은 전세계 평균인 1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7%로 OCED 국가는 물론 인도, 베트남 등의 국가보다도 낮은 상황입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을 포함한 전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등과 같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부족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은 우리 제조업들이 국내 사업장을 전력시장 규제 및 건설 인허가 규제가 더 용이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재생에너지가 도입되지 못하는 가장 큰 두가지 요인은 (1) 그 산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내주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인허가 제도와 (2) 잘못되고 경직된 전력시장 규제입니다. 본 서신에서는 위 두 가지 문제점 중 건설인허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건설인허가(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현재 상황은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 최소화를 우선순위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기초지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와 충돌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기초지자체에서는 민원의 방지를 위해 재생에너지 건설인허가의 조건을 강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28개의 기초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설비가 특정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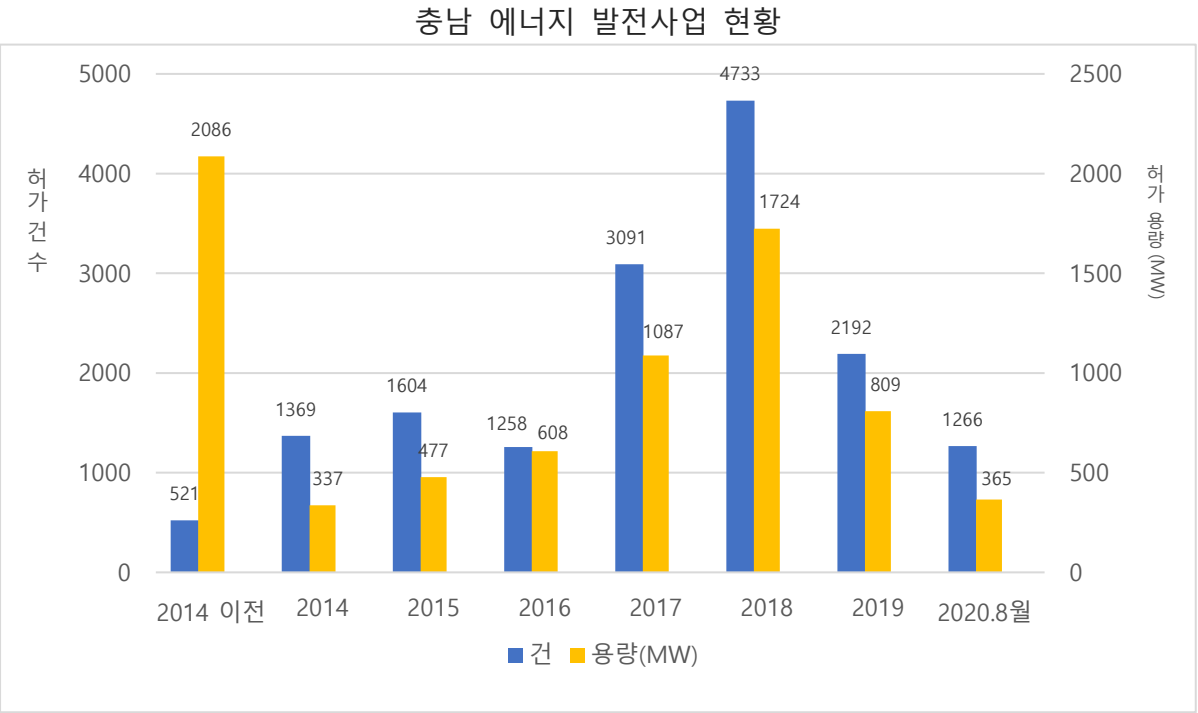
시설, 입지로부터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해주는 형태의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 수준은 평균 300m로 사실상 재생에너지 보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구미시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 비율이 0.09%로 채 0.1%도 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경남 함안군과 전북 함평군 또한 각각 0.64%, 0.78%의 면적에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



경북 구미시는 이격거리 적용 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 비율이 0.09%에 불과합니다.

차기 정부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인 이격거리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를 요구합니다. 이격거리 규제는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거의 유일무일한 규제로, 우리 에너지 산업의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인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도 2017년에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철폐하되, 100m에 한정하여 3년 간 한시 운영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오히려 동 규제 보유 기초지자체는 당시 83개에서 128개로 50%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증가로 인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오히려 전국의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건수는 급감하였습니다. 즉,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선결과제인 이격거리 규제 개선이 이전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문제가 심화된 것입니다.



이격거리 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8년 이후 충남의 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73% 감소했습니다.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에 필요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중간 목표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이 필수적이며, 새 정부 임기가 2027년 상반기까지임을 고려하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흐름 속에서 우리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리 없이 방치되어 온 이격거리 규제는 개선되어야 하며, 이는 재생에너지 입지 확보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격거리 규제의 배경이 된 주민 민원은 별도의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과 이를 위한 지자체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함께 해결되어야 합니다.

아래 서명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기후리더쉽을 요청 드리며, 그 첫 시도로 태양광발전소 이격거리 규제의 문제를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지1. 136개 연명 단체 목록]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마산 YWCA	진주지역경제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	마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진해 YWCA
사단법인 넥스트	미세먼지해결경남시민본부	진해여성회
태양광산업협회	민주노총경남본부	참살기좋은마을만들기연구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민주노총여성위원회	창원 YMCA
경남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통영시위원회	창원 YWCA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	민중당경남도당	창원민예총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남하석탄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창원시정순욱시의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생태환경연구회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사천여성회	창원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을담다	창원여성회
창녕환경운동연합	사회적협동조합 애기똥풀	창원여성회관진해관
가톨릭노동장년회(마산교구)	사회적협동조합 한들산들	채식평화연대
가톨릭여성회관	산청인문학모임두목회	청마역사모임
거제 YMCA	삶예술연구소대표	청만행웅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남영화제작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
거제시민에너지협동조합	생태환경교육문화원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섬진강과지리산사람들	클래식을사랑하는창원시민모임
경남녹색당	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경남대학교 동문공동체	시민의눈	통영시민문화모임'통로'
경남대학교환경소모임	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	통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경남연대	평통사마창진지회
경남생명의숲	양산 YMCA	푸른내서주민회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양산여성회	하나교회
경남양서류네트워크	양산아이쿱생활협동조합	한교회
경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살림경남
경남여성엄마민중당(준)	양산학부모행동	한살림경남생산자연합회
경남여성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통영지회	함안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여성인권상담소	우리동네작은도서관	해맑음문화활동센터
경남이주민센터	웅상노동상담소	협동조합언니네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웅상이야기	환경과생명을지키는경남교사들의모임
경남풀뿌리환경교육센터	원불교평화행동	6.15 공동선언실천창원시지부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6 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곰마실아이들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사)아름나라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자연과사람들	사)좋은벗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장유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경남민족예술인총연합거제지부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전교조양산중등지회	사)생활자치커뮤니티우리동네사람들
김해 YMCA	전국농민회부산경남연맹	사)평화를잇는사람들
김해 YWCA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남지부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김해교육연대	전여농경남연합	사)희망웅상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분과	정금교회	
꼬마평화도서관	정의당경남도당청년학생위원회	
꽃피는학교	정의당남해하동지역위원회	
남해여성회	정의당양산지역위원회	
내서마을학교	정의당경남도당	
노동당 경남도당	지리산생명연대	
담쟁이인문학교	진주 YMCA	
동요어른철부지	진주같이	
마산 YMCA	진주여성회	

[별지2. 참조인 목록]

이름	소속
제 20 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	
김상협	기획위원회 위원
왕윤종	경제 2 분과 위원
유웅환	경제 2 분과 위원
고산	경제 2 분과 위원
백경란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
안상훈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
김도식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
박주헌	경제 2 분과 전문위원
심교언	경제 2 분과 전문위원
정용훈	경제 2 분과 전문위원
김지희	경제 2 분과 실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이재식	재생에너지정책과 과장
김범수	재생에너지정책과 공업사무관
노진만	재생에너지정책과 행정사무관
명지혜	재생에너지정책과 공업사무관
송상현	재생에너지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예슬	재생에너지정책과 주무관